

戰後經營經濟學의 發達과 潮流, 乙 向方

韓 義 泳

.....《目 次》.....	
1. 戰後經營經濟學의 發達	1. 經營經濟學의 潮流
II. 經營經濟學의 오늘의 潮流와 向方	2. 經營經濟學의 向方

I. 戰後經營經濟學의 發達

戰後經營經濟學에 있어서의 兩大山脈이라 일컬어지는 工業經營學의 구텐벨히(E. Gutenberg)와 함께 商業經營學의 사이헬트(R. Seiffert)는 다 같이 이른바 쾤론學派(Kölner Schule)의 兩大巨頭로도 有名하지만, 특히 사이헬트는 經營經濟學史의 大家로도 저명하다. 『經營經濟學의 發達과 課題 및 概念』⁽¹⁾에 의하면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으로서의 오늘날의 獨일經營學이 理論的으로 精緻化되어, 또 方法論的으로도 深化되어 나가는 時期가 대략 1926年 이후부터라고 지적되고 있다.⁽²⁾ 따라서 經營經濟學은 그 무렵부터 第2次世界大戰까지의 約 30年間에 學問的으로 크게 發達되어 나가며, 그 간의 經營經濟學의 學問的潮流는 대충 다음의 〈表 1〉과 같은 樣相을 呈示했었다고 할 수 있다.

〈表 1〉 1920年代~1940年代의 學問的潮流

倫理·規範學派(Die ethische-normatische Schule)

H. Nicklisch

R. Dietrich

J.F. Schär

經驗·實證學派(Die empirische-realistiche Schule)

理論的 傾向(Die theoretische Richtung)

W. Rieger

F. Schmidt

技術論的 傾向(Die technologische Richtung)

E. Schmalenbach

F. Leitner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1) R. Seiffert, Über Begriff, Aufgaben und Entwicklung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C.E. Poeschel Verlag, Stuttgart, 1963.

(2) R. Seiffert, a.a.O., S. 34.

이처럼 戰前의 經營經濟學의 潮流에는 두개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그 시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經驗·實證學派, 그 가운데에서도 슈마렌바하(E. Schmalenbach)가 이끄는 技術論派가 닉리쉬(H. Nicklisch)에 의해 主導된 倫理·規範學派를 상당한 면에서 압도해 왔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倫理·規範的 傾向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超倫理的인 規範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倫理의 價值判斷의 객관성을 論證할 필요가 있으나, 經驗科學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非論理性 때문에 經驗·實證的 潮流에 뒤질 수밖에 없는 學問의 「딜레마」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최소한 1933年부터 1945年까지의 시기는 그 당시의 國家社會主義라는 客觀的情勢⁽³⁾ 탓으로 社會共同體의 理念을 크게 앞세우는 닉리쉬의 영향이 강하여 倫理·規範的인 흐름이 도리어 經驗·實證的인 흐름을 앞지르는 형편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은 현대 經營經濟學史上 아이러니컬한 史實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헤(G. Wöhe)의 말처럼『나치스時代에는 나치즘(natism)의 世界觀과 일치해야 하는, 公準化된 規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진 規範的·價值設定的(價值判斷的) 經營經濟學이 得勢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⁴⁾이다.

결국 第2次 世界大戰이 종식됨으로써 그동안 히틀러(A. Hitler)가 이끌어 오던 國家社會主義(나치主義)體制라는 우산 속에서 한때 30~40년대의 經營經濟學界를 주름잡던 倫理·規範的인 흐름이 산산조각나고, 다시 學問思想의 자유를 되찾게 된 독일經營學은 보다 깊은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세계 經營學의 兩大山脈의 하나인 미국經營學과 비교해 볼 때 독일經營學 쪽이 아무래도 이론적인 면이 강하나, 오늘날처럼 그 학문적인 성격이 대체적으로 이론과 실제의 양생적인 특징이 뚜렷해지기에 이르는 것도 대략 戰後의 195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또 바로 이 시점부터 이른바 號3次方法論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기도 한다.

어쨌든 第2次 世界大戰의 종식은 독일에 있어서의 國家社會主義의 몰락과 함께 현대經營經濟學의 潮流를 戰前의 開化期의 發展時代로부터 戰後에 더욱 深化된 理論化時代로 옮기게 하는 誘因이 된다. 특히 戰後 西獨經濟의 급속한 부흥을 계기로 해서 企業實踐의 영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에 맞추어 經營經濟學의 각 部分領域에 있어서의 연구의 精密性이 보다 高揚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를테면 벨링거(B. Bellinger)의 지적처럼⁽⁵⁾

(3) H. Kleinhorst, *Die normative Betrachtungsweise in die BWL*, Berlin, 1956, S. 75.

(4) G. Wöhe, *Methologische Grundproblem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Meisenheim, 1959, S. 131.

(5) B. Bellinger, *Geschichte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Berlin, 1967, SS. 74-88.

1950年代를 전후에서 生產理論·原價理論·販賣理論·組織理論·投資理論 등 企業의 각 實踐領域에 있어서의 理論的 研究가 차차 深化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기에 셰퍼(E. Schäfer)가 第2次 世界大戰 후의 經營經濟學의 상황을 이른바 理論局面(Theorie-Phase)이라 호칭하고 『原價論·販賣論·組織論 등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部分領域의 연구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고립적인 연구를 하나의 일반적인 經營經濟理論 가운데서 體系化해야 할것』⁽⁶⁾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理論局面에 접어든 經營經濟學으로서의 독일經營學의 深化時代는 대충 1950年代부터 1970年代에 걸쳐 그 깊이를 더해가기 시작한다. 이 20年間을 흔히 「經營經濟學의 理論化時代」라고도 일컬지만,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① 1933年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된 科學으로서의 經營經濟學의 客觀的 研究의 곤란성이 학문적으로 除去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과 ② 이른바 社會的 市場經濟(soziale Marktwirtschaft)를 배경으로 해서倫理·規範的 傾向의 후퇴와 함께 주로 經驗·實證的 傾向을 바탕으로 한 研究分野의 統一的 把握이라는 經營經濟學의 理論的 體系化的 연구가 진전되어 나간 점이 지적됨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社會的 市場經濟」란 戰後 줄곧 서독經濟復興의 기둥이 되어 왔던 서독經濟體制의 原理로서, 그 당시의 에아할트(L. Erhard)經濟相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經濟體制概念이다. 이 經濟體制의 原理는 결코 社會主義經濟秩序의 확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또 단순한 自由主義經濟秩序에의 移行에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새로운 經濟秩序의 形成에 있게 된다. 즉 그 원리의 3大特色은 ① 競爭秩序 ② 社會的 介入의 規制 ③ 生產手段의 私的 利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市場에 있어서의 競爭秩序를 維持·形成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經濟政策的 課題로서, 그것이 곧 社會的 市場經濟體制의 根幹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나서 市場經濟過程을 방해함이 없이 그 成果를 사회적으로 修正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限해서 국가의 社會적인 介入을 容認한다는 것이 그 두번째 특색이 된다. 더 나아가서 生產手段의 私的 所有는 社會政策의거나 經濟政策의으로 어디까지나 유지되어야 하며, 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 세번째 특색이 되고 있다. 바로 서독의 經濟體制는 이러한 세가지 기둥에 의해 지탱되어 왔으며, 따라서 전후 서독에 있어서의 經營經濟學의 연구 자체도 이러한 社會的 市場經濟體制에만 相應한 방향에서 모색되어 왔었다고 할 수

(6) E. Schäfer, *Von der statischen zur dynamischen Betriebswirtschaftslehre*, ZfhF, 1953, SS. 15-16.

있다.

이렇듯 戰前과는 전혀 다른 社會的 市場經濟體制라는 새로운 法的・經濟的 環境下에서 새롭게 「理論局面」에 접어들게 된 經營經濟學의 研究成果는 1948년에 그 첫 선을 보이면서 그 후 1951년의 불과 3년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수 없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다만 이 때만 하더라도 대반의研究成果들은 著書로서가 아니라 거의 論文形式으로만 발표되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論文들이 掲載된 經營學 관계의 學術雜誌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誌上 論爭이 벌어지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곧 第3次 方法論爭의 시작이다.

戰後에는 처음인 第3次方法論爭은 1950년 7월에 다름슈타트(Darmstadt) 工大에서 열린 독일勞動學會(Dtsche Gesellschaftstagung für Arbeitswissenschaft)를 적접적인 契機로 하여 시작된다. 이 학회에서 네세워진 심포지움의 共同主題가 「經營에 있어서의 人間」이었으며, 독일經營學에서 처음으로 人間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전후 이 무렵의 經營經濟學의 研究方向을 대충 짐작케 하고 있다. 어떻든 人間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그 동안 미국에서 행해진 人間關係論이나 組織論上의研究成果의 영향이 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經營學에서의 實用主義의 인管理論의 영향도 커던 것은 물론인데, 이는 전후 독일經營學에 있어서의 研究領域이 차츰 企業實踐의 領域에서도 확대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울러 社會的 市場經濟體制의 도입과 함께 전후 독일에 있어서의 人間性回復의 要請에 대한 독일經營學者들의 態度表明이 바로 이러한 식의 심포지움開催에서 表面化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틀에 걸쳐 개최된 이 모임에서는 많은 經營學者들에 의한 論文發表와, 이에 따른 열띤 討論이 있었으며, 이 때의 發表論文들이 후일 여러 學術雜誌에 掲載되면서 다시 甲論反駁의 論쟁이 誌上을 장식하기에 이른다. 이때의 主要爭點은 궁극적으로는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에 관한 문제로서, 대충 『이제까지의 經營經濟學은 그 認識對象으로써 經營의 經濟的인 측면에만 한정시켰으나, 이제부터의 經營經濟學은 차라리 經營의 社會的인 측면에 한정시킴이 옳다. 왜냐하면 經營의 중심은 人間에 있기 때문이다. 이 人間 내지 人間關係에 유의하는 것이 經營經濟學의 本질이어야 한다. 따라서 社會學과 心理學에서의 研究成果를 보다 많이 받아들여야 하며, 단순히 經營의 經濟적인 측면에서만 연구를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그 研究方法論上의 贊論이다. 이에는 이를테면 학스(K. Hax)⁽⁷⁾, 슈미트(A. Schmidt)⁽⁸⁾, 피셔(G. Fischer)⁽⁹⁾ 등이 그 앞장에 서게 된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經營經濟學의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대충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은 어디까지나 經濟的인 측면이어야 한다. 經營經濟學을 마치 經營社會學으로 混同하는 것은 科學으로서의 經營經濟學에 있어서의 認識對象문제를 전혀 차각하는 소리』라는 것이 그 反論이다. 이에는 이를테면 쇠페(E. Schäfer)⁽¹⁰⁾, 포트호프(E. Potthoff)⁽¹¹⁾, 레만(H.R. Lehmann)⁽¹²⁾ 등이 그 선봉에 서게 된다.

-
- (7) K. Hax, *die menschlichen Beziehungen im Betrieb als Gegenstand wissenschaftlicher Forschung*, ZfhF, Neue Folge 1. Jg. 1950.
 - (8) A. Schmidt, *Bedarf es einer besondere Soziallehre innerhalb der BWL?* ZfB, 1950.
 - (9) G. Fischer, *Der Mensch im Betrieb*, ZfB, 22. Jg. 1952.
 - (10) E. Schäfer, *Über einige Grundfragen der BWL*, ZfB, 20. Jg. 1950.
 - (11) E. Potthoff, *Die Organisation des Personalwesens in der industriellen Unternehmung*, ZfhF, 2. Jg. 1950.
 - (12) M.R. Lehmann, *BWL und Betriebs-Soziallehre*, ZfB, 21, Jg. 1951.

결국 그들은 한결같이『오늘날 우리의 經營經濟學이 아직도 그 이름 그대로 經營經濟學인 것은 그것이 결코 經營社會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지만, 사실 經營經濟學이 분명히 하나의 科學(學問)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經營의「經濟的인 측면」이라는 고유의 認識對象을 지녔기 때문이다. 經營의 經濟的인 측면뿐만 아니라 社會的인 측면, 나아가서心理的인 측면까지도 그 인식대상으로 포괄할 때 經營經濟學만의「고유의 認識對象」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럴 때 斯學이 결코「하나의 科學(學問)」일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이론바 經營社會學派의 極端論者인 피셔(G. Fischer)는 일부러『經營經濟學은 社會學의 一分野로 간주되어야 한다』⁽¹³⁾고까지 極言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어떻든 第3次方法論爭은 소위「經營經濟學에 있어서 經營社會學論爭」에서 첫 불꽃이 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第3次方法論爭의 본격적인 시작은 아무래도 1952년에 구텐벨히(E. Gutenberg)에 의해 저술된『經營經濟學原理(第1卷, 生產額)』⁽¹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文獻史的經營學史에 있어서의 一般論이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 주로 經營學 관계의 學術誌를 중심으로 하여 벌어진 方法論爭上의 爭點은 단순히 經營經濟學의 認識對象을 둘러싼 이론바「經營社會學論爭」이었으나, 구텐벨히에 의해 비로소 第1次나 第2次에 걸쳐 계속되어 오던 經營經濟學으로서의 본연의 학문적 本質문제가 다시 再燃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로 말미암아 經營經濟學의 性格, 方法, 體系, 指導原理 등에 관한根本的 문제가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經營經濟學(즉 經營學)과 國民經濟學(즉 經濟學)의 理論的 統合문제, 經營經濟學에의 數學的手法의 導入 문제 등에까지도 폭넓게 論及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사실 구텐벨히라면 戰後 經營經濟學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현대 經營經濟學의 大家로서 유명하다. 특히 그의 理論的 基盤이 곧 서독의 社會的 市場經濟體制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어서 더욱 저명하다. 이를테면 그는 그 이론의 전개를 항상 오늘날의 社會的 市場經濟體制와 관련시킴을 잊지 않으며, 현실의 企業(經營)을 經濟性原則에 따른 生產要素의 結合 이상의 것으로서 파악함으로써, 그것은 곧 이론바 體制關聯的 事實(systembezogene Tatbestände)로서의 營利原則과 自律原則이 기본적인 指導原理로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規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指導原理는 결국 企業에 있어서의 生產手段의 私的 所有라는 社會的 市場經濟體制下에서의 現實과 일치하면서 企業의 自律的 活動을 促進하며, 따라서 오늘날의 企業은

(13) G. Fischer, *Der Mensch im Betrieb*, a.a.O., S. 477ff.

(후일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經營經濟學의 대부분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K. Altfeder, O. Grün 등과 같은 經營組織論者들까지도 오히려『經營社會學, 그것은 社會學의 一分野』라고 못박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14) E. Gutenberg,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Bd. I., Die Produktion, Köln und Opladen, 1952.

單獨決定原理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고도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구텐벨히의 이러한 單獨決定原理만은 그 후 실제로 도입되어 오늘날의 독일企業의 커다란 특징이 되고 있는 共同決定權(Mitbestimmungorecht)과는相反되는 성격의 것으로서, 그것이 곧 이른바 「구텐벨히經營經濟學의 限界」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1950年代와 1960年代에 걸쳐 그의『經營經濟學原理』는 새로운 理論的 新風으로서 당시의 독일經營學界에 군림하게 된다.

물론 구텐벨히는 經營經濟學을 經驗·實證的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理論科學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그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간 經營經濟學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斯學을 純粹理論科學으로만 보고, 國民經濟的 領域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경영 문제의 解明에 있어 애써 國民經濟學上의 經濟理論을 그 分析用具로서 이용하고자 시도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구텐벨히의 이와 같은 方法論的 意圖가 이제까지의 技術論派에 의해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이며, 특히 츄말렌바하의 技術論으로서의 實踐的 經營經濟學을 承繼하는 멜레로비츠(K. Mellerowicz)에 의해 심한 반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¹⁵⁾

이렇게 해서 戰後 1950년대부터 第3次方法論爭이 본격적으로 再燃되며, 멜레로비츠와 같은 舊世代의 技術論派는 물론이려니와 新進學者들의 거의 대부분도 이 論爭에 關與하게 됨으로써, 賛否兩論의 大論爭이 展開되기에 이른다. 第3次方法論爭이 얼마나 大規模的인 것 이었는가는 구텐벨히의『經濟學原理』의 출판 이후 6년동안에 무려 95개의 見解가 쏟아지기 까지 했었다는 사실로만 미루어 보아도 과히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른바 구텐벨히經營經濟學의 理論的 體系는 그의 3部作으로 대표되는데, 그 첫번째 시리이즈인『經營經濟學原理(第1卷, 生產論)』에 이어, 두번째 시리이즈로서의『經營經濟學原理(第2卷, 販賣論)』⁽¹⁶⁾, 그리고 나머지 세번째 시리이즈인『經營經濟學原理(第3卷, 財務論)』⁽¹⁷⁾이 거의 15년간의 진통끝에 마지막으로 출판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方法論爭의 계기는 첫번째 시리이즈인「生產論」에서 비롯되며, 그 논쟁의 촛점은 역시 經營學의 학문적인 성격에 놓여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戰前의 제1차와 제2차의 方法論爭에서도 끝장을 보지 못했으며, 또 결코 끝장을 보기도 어려운『經營學은 理論科學이냐 應用科學

(15) 구텐벨히(E. Gutenberg)와 멜레로비츠(K. Mellrowicz)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方法論爭은 第3次論爭에 있어서의 「크라이막스」를 장식하며, 그 論爭終盤期에는 學問的 論爭을 초월해서 人身攻擊까지도 겸들여지는 大論爭的 樣相을 보이기까지 한다. 어떻든 이 兩者間의 論爭은 方法論爭史上 前無後無한 「世紀의 大論爭」으로 평가되기가 일반적이다.

(16) E. Gutenberg,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2 Bd., Der Absatz, Springer Verlag, Berlin, 1955.

(17) E. Gutenberg,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3 Bd., Die Finanzen, Springer Verlag, Berlin, 1968.

(技術論)이나』라는 문제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할만하다.

어쨌든 戰後 구텐벨히의 출현에 의해서 독일經營學은 이론적으로도 더욱 그 깊이를 더해 가며, 이후 독일의 經營經濟學은 똑같은 經驗·實證的 傾向이라는 흐름 가운데에서도 「純粹科學」임을 앞세우는 소위 理論的 經營經濟學과, 「技術論」임을 내세우는 實踐的 經營經濟學이라는 두 개의 학파가 대략 共存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 가운데서 實踐的 經營經濟學의 潮流가 그런대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구텐벨히 이후 많은 후계자들이나 신봉자들이 잇달아 그 뒤를 이어감에 따라 오늘의 독일經營學은 자연적으로 理論的 經營經濟學의 潮流쪽이 더욱 우세해지는 경향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도 흔히 독일經營學은 미국經營學과 견주어 볼 때 아무래도 이론적인 성격이 강한 經營學이라 일컬어지는 연유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經營經濟學이 形成된 이후 1910/12년경의 發展時代부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 戰後 1950년대와 1960년대의 深化時代를 장식하게 되는 독일經營學의 학파적인 흐름과 그 각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아진다고 할 수 있다.

〈表 2〉 1950年代~1960年代의 學問的 潮流

經驗·實證學派	實踐的·技術論的 傾向(Die praktische-technologische Richtung)
	K. Mellerowicz K. Hax A. Moxter
	理論的·純粹科學的 傾向(Die theoretische-wissenschaftliche Richtung)
	E. Gutenberg R. Schreiber R. Katterle

그런데 구텐벨히에 의해 빚어진 大戰後의 제3차方法論爭이라는 것도 그 핵심에 있어서는 역시 經營經濟學의 학문적인 성격을 둘러싼 大戰前의 제1차나 제2차 때의 方法論爭과 같은 문제의 계속이라 할 수 있겠으나, 따지고 보면 내용적으로는 大戰前의 방법논쟁과 大戰後의 그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된다. 즉 戰前의 논쟁에 있어서는 經營學의 學問體系上의 핵심으로서 주로 計算制度나 資本調達과 같은 會計學的인 측면(나아가서는 財務論의인 측면)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戰後의 논쟁에서는 그 핵심으로서 비단 會計學뿐만 아니라, 특히 生產論이나 販賣論, 그리고 人事·組織論과 같은 오늘날의 經營學體系上의 핵심분야를 포함한 것이었다는 데서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經營學과 經濟學의 統合 문제, 經營學에 있어서의 數學利用의 문제 등이 새로 추가되기

도 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전후의 독일經營學은 바야흐로 그 深化時代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그 동안 라인江의 기적으로서 널리 알려진 서독경제의 재빠른 부흥을 계기로 해서, 실제의 기업경영이 크게 팽창하여 감에 따라 독일經營學 자체도 자연히 그 깊이를 더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격적인 第3次方法論爭의契機가 된 구텐벨히(E. Gutenberg)의『經營經濟學原理(生產論)』은 第1部 生產要素의體系(Das System der produktiven Faktoren), 第2部 結合過程(Der Kombinationsprozeß), 第3部 經營形態의決定要因(Determinanten des Betriebstyps)이라는 3部分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結合過程」은 生產諸要素의結合的行爲의 결과를 뜻하며, 구텐벨히의基本思考는結合過程으로서의生產過程을 파악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의 서술에 의하면 生產諸要素은 基本的要素(Elementalfaktoren)인 労動給付(menschliche Arbeitsleistungen), 經營手段(Betriebsmittel) 및 原資材(Werkstoffe)와 處理的要素(dispositive Faktoren)인 經營管理(Betriebsleitung)로 구성되며, 이들 生產諸要素의結合은 經濟性原則에 따라 投入量의 일정한 상태와 可能性 밑에서 最適한均衡(optimale Gestaltung)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生產的效果는 生產諸要素의 상태, 특히 質的水準이나 그結合의方法에 의존하게 된다. 이를 이론바體制無關的事態(systemindifferente Tatbestände)라 일컬지만, 結合過程은 단순한 經濟性原則에 따른 生產諸要素의結合이 아니라 항상 體制關聯的事態(systembezogene Tatbestände)와 관련을 맺게 마련이다. 바로 이것이 經營活動의 최고의指導原則이며, 이는 그때의 地位적인 經濟體制(Wirtschaftssystem)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그는 결국 이 結合過程(Kombinationsprozeß)을 經營過程(Betriebsprozeß)의 핵심으로 간주, 그러한 經營過程을 國民經濟의近代理論에서 이미 확립된 收益法則을 통해 설명하며, 이를 函數關係, 따라서 收益函數로 파악한다. 이 경우 原價函數는 收益函數의逆函數로 이해되며, 바로 이 점이 第3次方法論爭과 함께 이론바 原價論爭의 발단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는 收益函數로서의 經營過程이란 經濟에 있어서의 마이크로經濟的分析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럴 때 그리한 經營過程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학문은 어디까지나 純粹科學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따라서 斯學은 理論的經營經濟學으로體系化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그리기 위해서는 微視經濟學의理論(특히 근대적인 原價理論과 價格理論, 市場形態의理論 등)과의 밀접한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 것이다.

이때 그리한 理論體系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演繹的方法이 앞세워져야 하며, 또 近代經濟學의 分析的用具를援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역설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처에서 社會的市場經濟라는 體制關聯的事態下에서의 理論的言及을 잊지 않는 것이다. 결국 구텐벨히經營經濟學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오늘날의 서독經濟體制(社會的市場經濟體制)에 가장 알맞게 꾸며진, 戰後의 대표적인 독일經營學說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II. 經營經濟學의 오늘의潮流와 方向

1. 經營經濟學의潮流

한마디로 ① 經營經濟學은 理論科學인가 應用科學인가 ② 國民經濟學과 經營經濟學의統

들은 可能한가 ③ 經濟科學에 있어서 數學利用은 是인가 非인가 등 대체로 3가지 측면으로 요약되는 第3次方法論爭이 戰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로 구텐벨히(E. Gutenberg)를 앞세운 理論派와 멜레로비츠(K. Mellerowicz)로 대표되는 技術論派 사이에서 본격화되기에 이르렀으나, 1960년대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차차 이러한 論爭에 새로운 局面이 보태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66年/67년의 大不況을 겪게 됨으로써 이른바 社會的 市場經營體制에 의해 지탱되어 오던 서독經濟體制가 그 根底에서 동요되기 시작하는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동요는 곧 이제까지 독일經營學의 「파라다임」으로까지 간주되어 오던 구텐벨히經營經濟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社會的 市場經濟體制가 동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經濟體制에 알맞게 꾸며진 구텐벨히理論 자체의 동요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밀어닥친 大不況에 의해 독일의 經濟成長은 극도로 둔화하게 되며, 鎮工業生產의 침체와 함께 失業者가 증대되면서 서독經濟의 根幹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不況이 1973년의 石油속크에 의해 더욱 可速化되어 가면서 독일經濟體制에 커다란 構造的 變化가 오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의 社會的市場經濟體制의 기반이었던 競爭秩序가 후퇴하면서 극도의 企業集中이나 寡占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바로 이러한 經濟支配力의 集中現象은 원래 資本主義經濟體制의 固有의 문제이긴 하지만, 「競爭秩序의 維持・形成」을 그 根幹으로 내세운 社會的 經濟原理와는 일치하지 않는 성격의 것임은 물론이다.

또 不況에 따른 經濟安定・成長政策의 導入이나 競爭制限禁止法(公正去來法)의 改正強化 또는 環境문제의 처리 등을 위해 국가의 市場經濟過程에의 介入이라는 事例는 「社會的 介入의 規制」라는 社會的 市場經濟體制上의 또 하나의 原理를 흔들어 놓는 일과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서 大不況 이후, 특히 勞使관계를 중심으로해서 새로 마련되기에 이른 共同決定(Mitbestimmung)이나 財產形成(Vermögensbildung)과 같은 勞務者의 權利擴大는 企業의 政策決定이나 所有의 문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사실은 곧 「生產手段의 私的 所有의 維持・擴大」라는, 세번째로 중요한 社會的 市場經濟原理와는 전혀相反되는 現象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66年/67년의 大不況 이후의 독일經濟體制의 변화는 이제까지의 社會的 市場經濟體制를 그 根底에서 크게 흔들어 놓는 성질의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戰後 줄곧 독일經營學의 「파라다임」으로서 간주되어오든 구텐벨히經營經濟學이 어떠한 형태로든 再檢討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이른바 「구텐벨히經營經濟學의 限界說」이 대두하게 되면서, 이제까지의 方法論爭에 새로운 각도에서의

甲論乙駁이 다시 보태지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구텐벨히經營經濟學은 그 통안 여러가지 관점에서 批判의 대상이 되어 오기도 했었다. 이를테면 그의 研究方法이 人間用具의이며, 오직 資本志向의이라는 論難과 함께, 新古典派의 性格에서 기인하는 과도한 抽象性이나 현실에 대한 說明能力의 缺如라는 등의 비판은 그 중 한例라 할만하다. 그러기에 구텐벨히學派를 자처하는 學者그룹 가운데에서도 많은 人士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構想을 꾸준히 提唱하여 오기도 했었다.⁽¹⁸⁾

이와 함께 소위 論理實證主義(logischer Positivismus: logischer Empirismus)라거나 批判的合理主義(kritischer Rationalismus)라고도 일컬어지는 새로운 科學理論이 理論的 經營經濟學의 補完의 研究方法論의 하나로써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潮流는 후에 理論學派 가운데서 그主流를 이루던 쾰른學派(Kölner Schule)와는 달리 따로 뉴른ベル그學派(Nürnberger Schule)라는 이름의 호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여기서 論理實證主義(일명 新實證主義)라거나 批判的合理主義라는 새로운 概念的問題는 처음으로 카렐레(S. Kattesle)⁽¹⁹⁾와 포퍼(K.R. Popper)⁽²⁰⁾에 의해 提起되다가 그 후 슈바이저(M. Schweizer)⁽²¹⁾, 콜러(R. Köhler)⁽²²⁾ 등 비교적 젊은 年代層의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기에 이른다. 카렐레에 의할 때 應用科學(實踐的 經營學)과 純粹科學(理論的 經營學)은 제각기 哲學的 認識論에 있어서의 實證主義(klassischer Positivismus)와 合理主義(Rationalismus)와도 상통하는 것으로써, 合理主義란 理性만이 真實에 도달할 수 있다는 命題에 일각하며, 演繹을 통해서 理論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한다. 거꾸로 實證主義(古典的 實證主義)는 개개의 사실의 관찰만을 認識의 원천으로 하며, 理論은 歸納을 통해서 관찰된 것으로부터 推論되어야 한다는 노력을 總稱한다.

그러나 論理實證主義 또는 新實證主義, 혹은 批判的合理主義라는 관점에서 볼 때 合理主義와 實證主義는 哲學的 認識論 가운데서並列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며, 더구나 兩者가 다 같이 實證科學의 命題體系의 特殊化에 대한 有效한 論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合理主義(純粹科學)와 實證主義(應用科學)는 그 어느 쪽도 理論의 성립과 그 檢證의 方法과를 구별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實證科學의 命題體系에 대한 다른 區劃의 標識가 찾아져야 하는데, 이 區劃標識를 카렐레는 科學理論의 演繹의 檢查의 方法에서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公理主義의 · 演繹的 命題體系라 일컬어진다.

(18) 이를테면 그러한 構想의 努力은 다음의 諸論文 가운데에서도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H. Koch, Über einige Grundfr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in: Zeitschrift für handelswissenschaftliche Forschung, 9. Jahrgang, 1957; H. Albach, Zur Theorie der Unternehmensorganisation, in: Zeitschrift für handelswissenschaftliche Forschung, 11. Jahrgang, 1959; E. Heinen, Die Zielfunktion der Unternehmung, in: Koch (Hrsg.), Zur Theorie der Unternehmung, Festschrift zum 65. Geburtstag von Erich Gutenberg, Wiesbaden 1962.

(19) S. Katterle, *Normative und Explikative BWL*, Berlin, 1964.

(20) K.R. Popper, *Objektive Erkenntnis*, Hamburg, 1973.

(21) M. Schweizer, *Methodologische und Entscheidungstheoretische Grundfragen der betriebswirtschaftlichen Prozessstrukturierung*, ZfHF, 1967.

(22) R. Köhler, *Theoretische System der BWL im Lichte der neueren Wissenschaftslogik*, Berlin, 1966.

이區劃標識는 일종의 提案이며, 이를 카렐레는 「眞實의 近似理論」(Approximationstheorie der Wahrheit)이라 부르고, 이 이론을 가지고 實證主義(應用科學)와 合理主義(純粹科學)에 공통된 公示理論(Manifestationstheorie)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그는 理論的 經營經濟學(記述的 經營經濟學)의 方法問題로서 經營經濟學은 기업의 行動樣式를 類型化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기업의 조직상·기술상의 所與(事實)와 經營者의 태도와 기대를 重視하는 주장을 앞세운다. 换言해서 현대 經營經濟學은 「經濟的 領域에 있어서의 人間의 사설상의 行動에 관한 理論」이어야 한다는 것이 카렐레를 중심으로 한 젊은 學者들의 견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독일 經營學에 대한 미국 經營學의 학문적인 영향도 커지기 시작한다. 특히 應用科學的(技術論的)潮流의 학자들에게는 미국에서의 經營科學(management science)의 거나 行動科學(behavioral science)의 학문면에서의 영향이 커지면서, 그러한 研究成果가 풍부하게 도입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1970年代에는 한때 소위 「獨·美 經營學의 一體化」라고 불리우는 事態와 時期가 技術論的潮流 가운데서 형성되기까지 한다. 이때부터 技術論 가운데서 미국 經營學의 영향을 크게 받은 學者그룹에 의해 따로 이른바 經營科學派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처럼 1960年代 후반에서 1970年代 중반에 걸쳐 理論科學的潮流의 批判과 함께 미국 經營學의 영향이 極大化되어 가면서, 이제까지의 方法論爭과는 그 양상을 달리한 방향에서 새로운 方法論爭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이를 오늘의 文獻史의 經營學史는 第4次方法論爭이라 호칭하게 된다. 물론 그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66年/67年の 大不況이라 할 수 있으나, 새로운 각도에서의 方法論爭이 本格화된 것이 대략 1970年代이었다고 해서 1970年代에서 1980年代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第4次方法論爭期라고 보게 된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第4次方法論爭期에 들어선 독일 經營學의 오늘날의 學問的潮流와 그 주된 代表者들을 간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表 3〉 經營經濟學의 오늘의 學問的主流(1970년~1980년)

經驗·實證學派	理論學派	新 Kölner 學派
		E. Gutenberg; G. Wöhe; E. Kosiol; K. Hax; H. Albach; H. Koch
	Nürnberg 學派	S. Katterle, K.R. Popper; R. Köhler, E. Schäfer; M. Schweizer; P.K. Feyerabend
	新技術論派	
	技術論派	K. Mellerowicz; G. Fischer; H. Heinen; J. Löffelholz; K. Hax; G. Bergler
	經營科學派	
		K. Junkerstoff; K. Engelmann; P. Deutsch; M. Beck; J. Mand

2. 經營經濟學의 向方

1966年/67年の 大不況으로 國家政策의 介入, 勞務者의 權利擴大, 他律的인 企業政策決定

등에 의해 戰後의 서독經濟體制를 지탱하든 社會的 市場經濟原理의 根幹이 차츰 동요되기 시작함과 함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經營學의 「파라다임」으로 간주되어 모든 구텐베르히經營經濟學 자체가 또한 그 限界를 露呈하기 시작하자, 70年代에서 80年代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양상을 띤 第4次方法論爭이 새로운局面에서 계속되기에 이른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독일經營學의 흐름이 대체로 理論學派의 潮流와 技術論의 潮流로 크게兩分되는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의 甲論乙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70年代에서 80年代에 걸쳐 오면서 그 동안 經營經濟學의主流인 經驗·實證學派와는 다른 새로운 學問의潮流들이 차츰 두드러져가는 傾向을 엿어서는 안 된다. 어느 의미에서는 그러한潮流가운데의 어떤 흐름은 독일經營學의 앞날을 크게 바꿔놓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점점 거세게 나가고 있기 조차하다. 다만 직관적인 관점에서만 말한다면 아직까지는 독일經營學의主流가 여전히 經驗·實證學派들의 와중에서 맴돌고 있다고 느껴질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學問의潮流중의 하나가 바로 規範主義의 内지 價值判斷의 經營經濟學(werturteilungsorientierte Betriebswirtschaftslehre)의 再登場이다. 이는 어느 의미에서는 戰前의 닉크리쉬(H. Nicklisch)에 의해 主導되던 倫理·規範學派의 潮流의 復活을 뜻하나, 단지 戰後의 그것은 戰前과는 달리 상당한 면에서 變質된 성격의 것은 물론이다. 그러지 않아도 戰後에 한때 그 자취를 감추었던 規範學派의 潮流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소규모로나마 차츰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었다. 이를테면 닉크리쉬의(倫理·規範學派의)인 經營經濟學을 引用하는 文獻들이 곧잘 出刊되거나, 그 理論的 解說書가 산발적으로 發刊되기도 했었다는 것이 곧 그러한例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新規範主義라는 형태로 價值判斷의 經營經濟學이 다시 제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1970年代로서, 이를테면 르이츠벨거(E. Loitsberger), 슈테레(W.H. Staehle) 등이 그 先頭走者가 된다.⁽²³⁾ 다만 여기서 新規範主義는 戰前의 경우처럼 모든 學問領域에 대해 학문의 이름으로 是非善惡의 價值判斷(Werturteilung)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主觀的·倫理的 관점을 떠나 다만 規範主義의 사고방식을 그 어떤 學問領域에만 適用시키게 됨을 뜻한다. 그러한 學問領域으로서는 특히 社會的 領域을 들 수 있으며, 가령

(23) 이를테면 新規範主義의 潮流의 文獻으로는 슈테레(W.N. Stachle)의 다음과 같은 劳作이 유명하다.

W.H. Stachle, Organisation und Führung sozio-technischer Systeme, Stuttgart, 1973.

W.H. Stachle, Die Stellung des Menschen in neueren betriebswirtschaftlichen Theoriesystemen, ZfB, 1975.

所得不平等의 社會的 문제는 價值判斷의 主體인 人間에 관한 領域으로 現代經營學은 이 러한 영역을 規範主義의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新規範主義에 따를 때 이러한 社會的 문제를 「學問에 있어서 究明」하는 것과 「學問의 이 름으로 判斷」하는 것은 서로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新規範主義의 사고방식은 現代經營學에 있어서 적어도 人間과 관련되는 사회적인 문제나 人間 자체의 문제가 論議될 경우 그 導入은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經營學이 人間行動의 當爲(Sollen)와는 전혀 無關係일 수는 없기 때문이며, 또 오늘날과 같이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곧잘 강조되어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모든 價值判斷을 내버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戰前의 니크리쉬의 主觀的이며 倫理的인 價值判斷은 물론 捨象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存在(Sein)를 規定하는 價值判斷, 즉 存在論의 價值判斷(合目的的 價值判斷)만은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고, 특히 理論과 實際의 兩面의 인 성격을 지닌 오늘의 實踐的 理論科學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新規範主義의 經營經濟學의 태동과 함께,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또 새로 대두하게 된 學問의潮流에 이른바 意思決定論의 經營經濟學(entscheidungsorientierte Betriebswirtschaftslehre)이 있다. 이潮流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經營學界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潮流는 經營經濟學을 應用科學으로 간주하는 技術論派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있다고도 할만하다.

여기서 意思決定論(Entscheidungstheorie; theory of decision-making)이란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일찌기 미국의 組織論者들인 베나드(C.I. Barnard)나 사이몬(H.A. Simon) 등에 의해 개발된 近代的 組織理論에 있어서의 한 接近方法論을 뜻한다. 그런데 意思決定論의 主題가 되는 「意思決定」(Entscheidung; decision-making)이란 한마디로 표현해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代替案을 策定, 이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相互比較・評價함으로써 가장 유리하게 실행가능한 代替案을 선택하는 人間活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意思決定論의 經營經濟學은 전적으로 미국經營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미국에서 발달된 行動科學(behavioral science)의 研究成果의 영향을 크게 입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부턴가 行動科學이 經營經濟(個別經濟)에 있어서의 人間行動의 연구에 이용됨으로써, 經營經濟의 現象을 그 모두가 人間의 意思決定의 결과라고 간주하는 입장에서 意思決定論의 經營經濟學이 태동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經營學의 하나의 새로운潮流로서 60년대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意思決定論의 經營經濟學의 先頭走者는 누구보다도 하이넨(E. Heinen)이다. 그것은 오늘날 意思決定

論的 經營經濟學이라면 일명 하이넨經營經濟學이라고 일컬을 정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하이넨의 意思決定論的 經營經濟學은 1966년에 출판된 그의 첫 저작인『經營經濟學——意思決定論의 理論과 實際』⁽²⁴⁾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하이넨經營經濟學(意思決定論的 經營經濟學)의 특징은 어디까지나 人間을 意思決定의 主體로서 파악하면서, 經營經濟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의 인간의 意思決定을 經營經濟學의 科學的 分析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企業經營에 있어서의 모든 事象을 이 意思決定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이 意思決定에는 目標設定과 目標達成의 意思決定이 있어, 目標設定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어떠한 목표가 經營經濟의 활동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하는가가 確定되며, 또 目標達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가가 결정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經營經濟學이 價值自由이면서도 어디까지나 實踐的인 應用科學으로서 전개된다는 점에 있다. 이때 그 隣接科學으로서는 이를테면 社會學, 心理學, 시스템論, 數學 등의 認識이 폭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용된다. 바로 이는 하이넨의 意思決定論的 經營經濟學이라는 것이 實踐的인 課題의 해결을 위해서는 境界科學的(interdisciplinary)인 研究成果가 얼마든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실은 經營經濟라는 하나의 組織이 社會科學의 對象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파악된다는 것을 뜻하며, 또 그것은 곧 종래의 「社會科學으로서의 經營經濟學」이라는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戰後의 독일經營學은 戰時中の 經營學研究의 공백을 메꾸고, 빠른 시일안에 「앵글로색슨」諸國의 研究段階에 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도 미국에서의 經營學의 諸認識의 적극적인 도입과 흡수를 기했었으나, 결국 이러한 「社會科學으로서의 經營經濟學」을 초월한 雜學性的인 學問觀과 아울러, 미국經營學 자체가 지니는 非體系性, 理論的 非整合性 등이 겹쳐 意思決定論的 經營經濟學이 다만 技術論派 가운데의一支流로서 맴돌뿐, 아직까지도 독일經營學의主流로서 군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게 된다. 이 이외에도 구텐벨히(E. Gutenberg)를 비롯한 수많은 理論學派들로부터의 批判이 독일經營學에 있어서의 意思決定論的 經營經濟學의主流의 役割에 「재동」을 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구텐벨히가『經營管理(Betriebsleitung)나 意思決定(Entscheidung)에는 결코 科學이나 理論이 있을 수 없다』⁽²⁵⁾고 강조하거나, 셰퍼(E. Schäfer)가『意思決定論은 人門行動에 관한 一

(24) E. Heinen, Betriebswirtschaftslehre heute, Die Bedeutung der Entscheidungstheorie für Forschung und Praktis, Wiesbaden, 1966.

(25) E. Gutenberg, Unternehmungsführing, Organisation und Entscheidung, Wiesbaden, 1962,

部分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How-to”的 성격을 지녔을 뿐』⁽²⁶⁾이라는 식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 등이 바로 그러한 批判들의 端的인 例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하이넨 經營經濟學은 이미 구텐벨히가 勞動給付(Arbeitsleistung), 經營手段(Betriebsmittel), 原資材(Werkstoffe) 및 處理的 要素로서의 經營管理(Betriebsleitung als dispositive Faktoren)라는, 그의 「4大 生產要素의 體系」 가운데서 提示한 「處理的 要素로서의 經營管理」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한 것인데, 그러한 「處理的 要素로서의 經營管理」 자체가 科學이거나 理論일 수 없을 바에야 하이넨의 意思決定論 자체가 또한 理論이거나 科學일 수도 없다는 이치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그러한 의미에서도 독일經營學의 學問의主流라면 아직까지는 앞의 〈表 3〉에서처럼 대체로 理論學派와 技術論派로 兩大別되는 經驗·實證學派의潮流라 할 수 있다. 다만 70년대 이후의 뚜렷한 現象으로서 이에 더하여 新規範主義的 經營經濟學의 흐름이 새롭게 대두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미국經營學의 영향을 多分히 흡수한 意思決定論的 經營經濟學의 움직임이 점점 세로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經驗·實證學派 이외에도 戰前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새로운 형태로서의 規範學派가 앞으로의 독일經營學의 또 하나의 흐름으로서 그 學問的位置를 굳혀가게 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서 슈마伦바흐(E. Schumalnenbach) 이후의 應用科學으로서의 技術論派가 意思決定論이나 行動科學과 같은 미국經營學의 研究成果를 더욱 더 흡수하게 됨으로써 技術論的 經營經濟學이 어느 틈엔가 마치 經營管理學(business management)의 양상을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 一例로 하이넨을 중심으로 한 技術論派 가운데 一部論者들의 意思決定論的 經營經濟學으로의 移行傾向을 들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生產論과 함께 經營經濟學의 兩大山脈의 研究領域을 형성했던 이제까지의 販賣論이 그 理論과 實際의 兩面에서 차츰 「마아케팅論化」되어가고 있다는 최근의 學問의 現象은 독일經營學에 있어서의 미국經營學의 影響度에 관한 端의 표현이라 할만하다.

〈表 4〉 독일經營學의 潮流의 向方

-
1. 主流의 向方
 - 理論學派와 技術論派間의 方法論爭을 통한 甲論乙駁의 갈등의 계속(특히 구텐벨히經營經濟學의 再評價作業의 深化)
 - 技術論派에 의한 미국經營學의 研究成果의 吸收增大(특히 하이넨經營經濟學의 影響度의 深化)
 2. 支流의 向方
 - 新規範主義 經營經濟學의 대두에 의한 規範論派의 復活
-

Vorwort.

(26) E. Schäfer, Die Unternehmung, 10 Aufl. Dr. Gablers, Wiesbaden, 1980, SS. 333-334.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독일經營學의 앞으로의 潮流的 方向을 살펴 볼 때 가령 앞表와 같은 將來의 現象이 豫見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엄밀하게는 오늘의 독일經營學에 있어서 위의 表에서와 같은 潮流的 方向만이 그 전부는 아니다. 이를테면 70년초에 이른바 베를린·그룹(Berliner Gruppe)이라 일컬어지는 西베를린大學의 急進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맑스主義的 經營經濟學의 출현이라든지, 또 같은 시기에 주로 勞動組合을 기반으로해서 勞務者의 이익옹호라는 입장에서 전개되는 소위 勞動志向的 個別經營學(arbeitsorientierte Einzelwirtschaftslehre)의 대두 등은 그 나름대로의 支流의 潮流라 할만하다. 특히 맑스主義的인 입장에서 현재의 資本志向的 經營經濟學을 불어서 經營學이라 批判, 이를 전적으로 否定하는 이른바 「批判的」 經營經濟學의 潮流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그 威勢를 떨쳤든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에 편승해서, 이른바 大學의 民主化運動이나 研究·教育의 民主化運動을 둘러싼 論爭의 와중에서 생겨나, 한때 마치 독일經營學의 새로운主流인양 군림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潮流는 70년대의 독일에 있어서의 맑스經濟學의 급속한 退潮와 함께 80년대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극히 미약한 學問의 命脈만을 잊고 있을 따름이다.

이와는 달리 勞動志向的 經營經濟學(略稱: AOEWL)은 차라리 독일經營學의 하나의 새로운 支流로서 차츰 脚光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만도 하다. 그러나 이 潮流는 오늘날의 보편적이며, 또 차이펠트(R. Seiffert)의 時代區分에 따라 1926년 이래 통일적으로 "Betriebswirtschaftslehre" (經營經濟學)으로 불리워오는 通常的 名稱을 일부러 그 이전의 명칭인 "Einzelwirtschaftslehre" (個別經濟學)으로 固守함으로써, 이제까지의 資本志向的 經營經濟學과는 명칭에 있어서 조차 전혀 別個의 것임을 굳이 明示·強調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經營經濟學의 潮流라고는 할 수 없다.

이 潮流는 1972년에 독일勞動組合總同盟(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의 附屬研究所인 經濟·社會科學研究所(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 WSI)가 9名으로 偏成된 프로젝트·팀(Projektgruppe)에 대해 労動組合의 관점에서 오늘의 資本志向的 經營經濟學을 검토하도록 위촉한데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資本志向的 經營經濟學이란 労動志向的 個別經濟學에 의할 때 『企業을 資本增殖의 用具로서 간주하며, 이윤을 最終目標로 하는 私經濟의 合理性에 有用한 理論만을 구축하는 經營學』이라 못박고, 『이를 打破하기 위해서는 合理性을 널리 社會 전체의 입장에서 파악하며, 私的束縛에서 해방된 合理性으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²⁷⁾

(27) Projektgruppe des Wi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Institutes des Deutschen Gewer-

그러나 학문적으로 보아서 해당초 하나의 학문을 「利害의 志向」 여하에 따라서 論議하거나, 그 위에 理論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별씨 학문일 수 있는 바탕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勞動志向的 個別經濟學을 그 명칭대로 어디까지나 「個別經濟學」이지 결코 오늘의 「經營經濟學」이 아니라는 뜻에서도 독일經營學의 앞으로의 未來志向의인 潮流로 간주하기는 힘들 것이다. 독일經營學이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經營學일 수 있는 바탕은 「經營經濟學으로서의 독일經營學」에 있는 것이지 「個別經濟學으로서의 독일經營學」에 있는 것은 아니다.